지식경제부 MKE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	**보도자료**	함께하는 공정사회! 더 큰 희망 대한민국 http://www.mke.go.kr
'12년 9월 11일(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자료문의 : 로봇산업과 강감찬 과장(2110-5619), 고상미 사무관(5630)		

로봇 - 수출로 글로벌화 시작!
- 지경부, 로봇 수출대책 마련 -

▸청소로봇 품질인증·국제표준화 지원 강화
▸'로봇 수출협의체' 구성하여 수출 지원
▸'로보월드'를 아시아 대표 로봇 전시회로 육성

□ 정부는 품질인증·국제표준화 지원을 통해 로봇 수출에 대한 외국의 비관세 장벽 가능성에 대응키로 하고, 이를 위해 관계기관이 로봇 수출협의체를 구성하여 로봇의 수출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힘

□ 지식경제부는 9.11.(화) 로봇 수출기업과 지원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「로봇 수출기업 간담회」를 개최하고, 최근 수출산업으로 급성장 중인 로봇의 수출 확대 대책을 논의하였음

* 참석 업체 : 제조용 로봇(로보스타, 현대중공업, 삼성테크윈), 청소 로봇(유진로봇, 삼성전자), 교육용 로봇(KT, 로보티즈)

○ 금번 간담회는, '08년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지속된 로봇 수출 증가세가 금년 상반기 들어 약화되는 현상*에 주목, 로봇 산업의 수출·해외진출 관련 애로사항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수출 지원책을 체계화하기 위해 마련됨

* 로봇산업 수출은 '08년 2,273억원에서 '11년 5,211억원으로 3년간 연평균 32% 증가하였으나, 금년 상반기에는 제조용 로봇 수출이 전년 대비 7.2% 성장하는 등 수출 증가세 둔화

* 서비스용 로봇 수출을 주도(비중 84%)하고 있는 청소용 로봇은 프랑스 등 유럽에 주로 수출되고 있는데, 금년 상반기 유로존 재정위기의 영향을 받아 상반기 수출이 둔화된 것으로 분석

□ 간담회를 주재한 지경부 김학도 신산업정책관은 지난 10년간 로봇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 지원과 선도 로봇기업들의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으로 현재와 같은 좋은 성과가 가능했다고 평가하고,

○ 앞으로 로봇이 수출산업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힘

< 주요 지원 대책 >

① 청소 로봇에 대한 품질인증·국제표준화 지원을 통해 향후 비관세 장벽 등 대응 강화

IEC 국제표준에 우리 청소로봇 기술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고, 청소 로봇에 대해 별도의 HS 코드(국제상품분류체계)를 부여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

② 지경부·로봇산업협회·KOTRA 등으로 '로봇 수출협의체' 구성·운영하여 수출 지원

기업들이 필요시마다 수출 애로 해결 및 해외 로봇마케팅 관련 정보·인력 제공 창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

* 로봇업체들의 판매·수출 분야 최대 애로사항 : 판로개척의 어려움(62.9%), 시장정보 부족(39.7%), 판매시장 협소(31.4%) ('12년 실태조사 결과)

③ '로보월드'를 아시아 대표 로봇 전시회로 육성

매년 10월 로봇 경진대회·학술대회·전시회 등을 통합·개최하는 국내 '로보월드'(금년 7회, '12.10.25~28 개최 예정)의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여, 일본 iREX(국제로봇전)에 버금가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전시회로 육성

□ 한편, 국제로봇연맹(IFR :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obotics)이 8.30일 발간한 『World Robotics 2012』 (국제 로봇통계자료)에 따르면,

○ '11년도 세계 제조용 로봇 시장은 자동차 및 전기·전자산업에 힘입어 전년대비 46% 성장('10년 58억불→'11년 85억불)하였으며,

○ 서비스용 로봇 시장은 아직 절대적인 규모로는 제조용 로봇 시장에 미치지 못하나, 의료·국방로봇 등의 전문서비스용 로봇 시장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8.2%의 성장세를 기록('10년 39억불→'11년 42억불)

○ IFR은 중국의 로봇 붐, 미국의 제조업 부흥 노력, BRICs·동남아 등 신흥시장의 로봇 수요 증가 등이 지속됨에 따라 제조용 로봇 시장은 향후 '12~'15년간 연평균 5%대의 성장률을 보이고 서비스용 로봇도 재활 보조로봇 등이 성장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예측

○ 이에 따라, 앞으로 우리 로봇기업들이 기술력을 높이고 수출을 확대하여 세계 로봇시장 점유율을 늘려 나가면 국내 로봇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

첨부 1. 로봇 수출기업 간담회 개요
2. 로봇 수출 동향 및 확대 방안

첨부1 로봇 수출기업 간담회 개요

□ 배 경

○ 로봇은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불구 수출이 3년간 연평균 31.9% 증가 ('08년 2,273억원 → '09년 965억원 → '10년 2,288억원 → '11년 5,211억원)

○ 그러나 금년에는 제조용 로봇 뿐만 아니라 청소로봇 수출도 증가세가 완화되고 있어 전반적인 수출 동향 및 여건을 점검할 필요

○ 아울러 로봇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해외 마켓팅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향후 로봇 수출 확대방안을 체계화할 필요

□ 개 요

○ 시간 및 장소 : 9.11(화) 10:30, 로봇진흥원 사당사무소

○ 참석자 : 지경부, 업계(7), 협회, 진흥원

기 관 명	직 위	성 명	비 고
지식경제부	신산업정책관	김학도	
로봇산업협회	부회장	전유태	
로봇산업진흥원	원 장	주덕영	
로보스타	대 표	김정호	제조용 로봇
현대중공업	상 무	김성락	제조용, 의료 등
삼성테크윈	상 무	허광학	제조용, 군사용 등
유진로봇	대 표	신경철	청소 로봇, 서비스 로봇
삼성전자	그룹장(수석)	이준화	청소 로봇
KT	상 무	이 경	개인서비스 로봇
로보티즈	대 표	김병수	로봇 부품, 교육용 로봇

첨부2 로봇 수출 동향 및 확대 방안

Ⅰ. 로봇 수출 동향

1. 로봇의 수출 산업화

□ **(연도별)**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불구 수출이 3년간 연평균 31.9% 증가 ('08년 2,273억원 → '11년 5,211억원)

○ 제조용 로봇이 로봇 수출을 주도('11년 수출액의 70%)하고 있으나, 중국 등 대규모 설비 투자에 의존하여 수출 변동성이 큼

○ 청소로봇 수출은 '09년 29억원에서 '11년 772억원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으나, 그 외 군사용 로봇 등은 지속적이지 못한 상황

< 로봇산업의 연도별 수출 동향 >

(단위 : 억원, 전년동기대비 %)

품 목	'08년		'09년		'10년		'11년	
	금액	증감율	금액	증감율	금액	증감율	금액	증감율
제조업용 로봇	2,109	30.9	743	△64.8	1,426	91.9	4,212	195.4
서비스용 로봇	70	△52.7	95	33.3	742	681.1	920	24.0
로봇 부품·부분품	94	91.8	127	35.1	120	△5.5	79	△34.2
합 계	2,273	25.7	965	△57.5	2,288	137.1	5,211	127.8

* 근거 : 연도별 로봇산업실태조사 / 분기/반기별 로봇 수출 통계자료는 없음

□ **(금년 상반기)** 제조용 및 서비스 로봇 증가율 약화

○ 제조용 로봇 수출은 전년 1~6월 대비 7.2% 성장, 수출 다소 둔화

< 산업용 로봇(HS코드:8479.50) 수출 증감율 >

(단위 : USD 천불, %)

구분	`12.1월	2월	3월	4월	5월	6월	1-6월
'12년 수출액	31,844	14,455	8,161	14,004	11,800	9,833	90,097
(증감율)	(690.6)	(18.7)	(△45.3)	(171.3)	(△4.9)	(△62.5)	(7.2)
'11년 수출액	4,611	17,772	14,906	8,174	12,404	26,190	84,057

* 서비스용 로봇의 월별 수출은 규모가 작아 현재 HS코드 미부여

○ 청소용 로봇 주요 수출지역인 유럽의 재정위기로 인해 청소용 수출 최근 둔화 (관련 업계 상반기 실적 악화)

□ **(수출 대상국)** 제조업용 로봇은 주로 중국·일본, 서비스용 로봇은 프랑스 등 유럽, 로봇 부품·부분품은 일본으로 수출

○ 제조업용 로봇은 중국 등의 설비투자 및 자동화 수요에 크게 의존
* 제조업용 로봇 : 對중국 수출이 전체의 20%, 對일본 8%

○ 청소 로봇은 유럽 시장으로 주요 수출하며 미국 진출은 아직 미흡
* 가정 청소용 로봇 : 對프랑스10%, 기타 유럽 6%

2. 로봇 수출 사례 다양화

□ **(제조용 로봇)** '0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인 수출을 시작하면서 자동차, 디스플레이, 반도체 등 다양한 제조업용 기업 등장

○ 현대重은 '84년 로봇사업을 시작, 03년 100억원대 해외 수출 이후 자동차·LCD用 로봇을 본격 수출하여 '11년 약 1200억원 수출
* '04년 무역위는 현대重이 제소한 일본 산업용로봇 수출에 덤핑 판정

○ 로보스타는 '99년 창립한 디스플레이, 반도체, 휴대폰用 전문 중소 로봇기업으로 '11년 약 78억원 수출

○ 동부로봇·로보테크·두림로보틱스 등 다양한 제조용 로봇 기업들이 중국 등 신흥 시장을 중심으로 수출 확대

□ **(서비스 로봇)** 수출 측면에선 청소용 로봇이 주도하고 있고, 무인 감시경계 로봇의 수출 등 전문서비스 로봇 수출 사례도 주목

○ 삼성전자·LG전자와 유진로봇·한울로보틱스 등 中企의 적극적인 해외 진출 및 기술개발을 통해 청소 로봇 '11년 총 772억원 수출
* '93년 국산 무인청소로봇 개발 이후, '99년 이후 본격 수출 상품화

○ 삼성테크윈은 '10년 알제리로 약 550억원의 감시로봇시스템 수출

○ 로보티즈는 로봇 부품, 교육용 로봇 등으로 '11년 48억원 수출했고, 연구용 로봇기업들은 국제 로봇경진대회 우승 통해 기술력 홍보

Ⅱ. 로봇 수출지원 현황 및 확대방안

1. 총괄 평가 및 기본 방향

□ **(평가)** 지난 10년간의 정책 지원을 통해 다양한 제품을 발굴하고 기술력을 높이면서 로봇산업이 수출 산업으로서 자리 매김

○ 다만, 수출에 대해서는 종합적 접근 보다는 개별 로봇산업 진흥(로보월드·시범사업 등) 및 일반 수출진흥(해외전시 지원) 차원에서 접근

□ **(기본 방향)** 로봇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수출을 통한 생산규모 확대 등 글로벌화가 필수적

○ 단기적으로 국내외 전시회에 대한 전략적 지원 강화, 시범사업 성과 활용, 로봇 수출제도 개선 및 중장기적으로 제품 다양화 추구

2. 분야별 지원 현황 및 대책

1 국내 '로보월드' 전시회 → 아시아 대표 로봇 전시회로 육성

○ **(현황)** 국내 '로보월드' 개최시 해외 바이어 초청비 등을 위해 국비(4천만원, 전시개최지원사업) 지원 등 마켓팅 활동 지원

	'11년 규모	특 징
한국 로보월드(10월)	167개사, 419부스	'06년 최초. 경진대회·학술대회 등
일본 iREX(11월)	272개사, 1,085부스	'73년 최초. 격년, 도쿄, 제조용 중심
대만 TIROS(8월말)	85개사, 312부스	'08년 최초. 로보월드와 유사

○ **(향후 계획)** 금년말까지 '로보월드 국제화·확대 방안'을 수립하고, 내년부터 해외 바이어 초청 확대, 투자유치 활동 등 강화

* 로보월드는 B2C, B2B 전시회 성격을 모두 포함
* 제조용 로봇기업들은 공작기계展, 정밀기계展 등에도 참가

2 해외 전시회에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진출

○ **(현황)** 佛 INNO-ROBO, 獨 Automatica, 日 iREX 등 로봇 전시회 뿐만 아니라, 獨 IFA·美 CES 등 전자 종합展에도 다양하게 출품

- 해외 전시회(프 이노로보) 참가에 대해 국비 3천만원을 지원했고, 한국관으로 공동 참가하여 상담 800만불, 계약 85만불 추진 중

- 제조용 로봇으로 독일 오토마티카, 중국·미국 등 주요 시장의 공작기계展에 참여중이며, 퓨처로봇이 IFA 'Tech Watch'에 초청

- KOTRA '한국 브랜드 특별전'(런던올림픽 기간)에 로봇이 전시되었고, 中 쑤저우에서 '韓中 연합 로봇 체험전'(9.28~12월) 개최

○ **(향후 계획)** 제조용, 서비스용 등으로 나눠 전략 지역의 로봇 '공동 전시관' 참가 지원을 계속 추진하고, 해외 IR 등 강화

- 프랑스 이노로봇 등 로봇전문 전시회에 공동 참가 지속
- 중동, 중국 등에 '한국로봇 상설전시관' 구축 지원방안 검토

3 로봇 시범사업의 해외 테스트베드 구축 성과창출 강화

○ **(현황)** 시범사업 중 해외 테스트베드 구축사업('11년 4개, '12년 1개)을 통해 해외 수출기회로 활용하고, 국내 사업성과도 수출로 연계

* '11년: 핀란드·덴마크의 실버로봇, 뉴질랜드의 치매예방, 이태리 로봇공연, 미국 인공관절 수술 로봇 / '12년: 미국에 연구용 로봇플랫폼

* 뿌리기업 로봇적용 성공사례가 수출 계기 : 유진엠에스는 포스코멕시코에 주물로봇 2대 공급 (605천달러, 약 6.8억원)

○ **(향후 계획)** 실버·의료 로봇, 국방로봇 등 국내 로봇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계속 해외에 진출 및 수출하도록 유도

* 현대重은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용 로봇 수출 협의 중
* 소방로봇은 美 퍼듀대학과 공동으로 미국 진출 협력방안 모색 중

4 청소 로봇 HS코드(국제상품분류체계) 마련

○ **(현황)** 청소로봇은 ◆'11년 약 772억원을 수출했고 ◆향후 FTA 협상 및 무역·특허 분쟁에 대비, 별도의 HS코드를 부여하여 전략적인 관리가 필요한 품목

* HS코드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, 청소 로봇은 기존 진공 청소기(8508)와 기술적인 장벽, 특허 등의 비관세장벽이 있을 수 있는 품목

○ **(향후 계획)** 청소 로봇에 대한 별도의 HS코드를 부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(기재부, 관세청)와 협의 (매년 1회 개정)

5 품질인증 등에 대한 비관세 장벽 대응 철저

○ **(현황)** 청소용 로봇 품질인증기준 고시('10.12월) 및 인증사업 지원을 통해 시장개척을 지원하고, 국제표준 논의에 참여

* 품질인증은 청소용 로봇 수출 상품화 및 품질·기술력 축적에 유의미
* 로봇산업진흥원이 최소비용(6백만원)을 받고 품질인증을 실시중(3개社 5개 모델 旣인증)이며, ETRI는 유해물질 인증(RoHS) 지원

○ **(향후 계획)** 금년도 IEC 국제표준에 우리 청소 로봇기술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한편, 교구용 로봇에 대한 품질 제고 주력

* 교구 로봇 품질인증 기준 마련('11.6월) 이후, 금년에 처음으로 관련 제품에 대한 품질 테스트 결과 대체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상황

6 로봇수출 지원을 위한 '로봇 수출 협의체' 구성·운영

○ **(현황)** 현재 로봇기업들을 위한 체계적인 수출 애로 해결창구가 없어 기업들이 지경부와 협회·KOTRA 등을 통해 개별 접촉

○ **(향후 계획)** 지경부, 로봇산업협회, KOTRA, 무역협회 등이 참여하는 '로봇 수출 협의체'를 구성하고, 정기·부정기적으로 회의 개최

* 해외 시장정보, 마켓팅, 인력양성 등 무역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방안 마련

7 중장기적으로 수출제품 다양화 및 기술력 제고

* (현재) 제조용, 청소 로봇 → (향후) 제조용, 다양한 서비스 로봇, 부품, SW